

2 사계절과 함께



다이쇼 시대의 어는 여객 열차 내에서

다이쇼 시대 중순의 겨울, 고탄으로부터 오타루로 향하는 여객열차의 차내 풍경입니다. 청어 어장으로 객지별이하러 가는 사람, 농가의 사람, 직공, 상인, 셀러리맨, 부부와 아이, 학생 등이 함께 타고 있습니다. 열차 내에는 석탄 난로가 놓여 있습니다. 승객들의 복장에서 와타이레라고하는 솜옷, 사시코라고하는 누비옷, 쓰마고라고하는 겨울용 짚신 등의 전통적인 농어촌의 겨울 복장과 또한 두건, 가쿠마키라고 하는 담요로 만든 어깨걸이, 니주마와시라고 하는 기모노 위에 입는 남자용 외투 등 일본 옷 형식의 방한 옷들을 볼 수 있습니다. 신사복이나 학생복, 망토, 오버 등의 양복이나 가죽 구두 등이 점차 보급된 모습도 엿보입니다.

19세기 후반경부터 수많은 이주자가 홋카이도로 옮겨오기 시작합니다. 그 대부분은 고향에서보다 더 풍부한 삶을 꿈 꾸며 쓰가루해협을 건너왔습니다. 그러나 사계절의 환경이 고향과는 다른 가운데, 누구나가 그 꿈을 이룬 것이 아닙니다. 특히 겨울에 대한 대비는 생사와 관계되는 큰 문제였습니다. 주거를 따뜻하게 하고 계속 쌓이는 눈에 대한 대비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20세기에 들어서도 난방은 이로리(마룻바닥을 사각형으로 도려 파고 난방용, 취사(炊事)용으로 불을 피우는 장치)나 화로에 의지하고 단지 눈을 밟아 굳히기만 하는 집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이쇼 시대(1912~26)에 들어서면서 차츰 난로와 다양한 제설 도구 등이 널리 보급되어 사용되게 됩니다.

홋카이도에서도 설날부터 그믐날까지, 각 계절에 따라 일이나 생활의 리듬에 맞춘 행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홋카이도다운 독특한 특징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날에 집의 대문을 장식하는 〈시메나와〉는 혼슈에서는 주로 벚짚을 사용하지만 홋카이도에서는 사초 등으로 대응되기도 했습니다. 혼슈보다 추운 홋카이도에서는 메이지 시대(1868~1912) 후반경까지는 벼가 잘 자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 여름의 풍물인 칠석을 7월 7일에 실시하는 지역과 8월 7일에 실시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다양한 지역으로부터 사람들이 옮겨온 것도 이렇게 특징이 다양해진 이유의 하나입니다.

홋카이도의 개척이 진행되면서 큰 도시를 중심으로 음료수, 병원, 학교, 신사, 절 외, 철도 등 교통망도 정비되었습니다. 이러한 정비는 점차 농촌이나 어촌 등에도 보급되어 갔습니다. 그리고 메이지 후기부터 다이쇼에 걸쳐서 사람들의 일상생활은 크게 변해갔습니다. 예를 들어 두꺼운 모직물로 지은 방한 옷을 입거나 일본식 옷으로부터 서양식 옷으로 복장이 점차 변해갔습니다. 토마토, 양배추, 양파, 감자, 우유, 버터, 치즈 등의 서양식 식재료도 사용하게 됩니다. 건물에는 함석지붕, 유리창이 사용되었고 전등도 보급됩니다.



방을 따뜻하게 한다

에도시대 말에 하코다테에서 〈갓헤루〉라고 불린 일본 최초의 난로가 만들어졌습니다. 일반 사람들에게 난로가 보급되는 것은 메이지 시대의 후반에 가격이 저렴한 양철 제의 장작 난로가 시판되고 나서의 일입니다. 또한 석탄 난로도 등장합니다. 다이쇼 시대 말부터 쇼와시대 초에 걸쳐서 따뜻하고 편리한 저탄식이라는 난로의 내부에 일정량의 석탄을 모아 둘 수 있는 방식의 석탄 난로가 대량생산 되면서 홋카이도에서 넓게 사용되게 되었습니다. 홋카이도의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는 생활이 이렇게 해서 조금씩 실현되어갔습니다.



눈을 치우다

현관에서 도로까지의 제설에는 가에스키, 고스키, 전바라고 불리는 목제나 죽제의 도구와 철제의 삽이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농가 등 제설의 범위가 넓은 곳에서는 말에게 끌게 하는 삼각 썰매 등 눈을 굳히는 도구도 볼 수 있었습니다. 1950 년대에 들어서자 철도의 역 구내 등에서 유키오시라고 하는 도구도 사용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 후 마마상담프나 스노담프 등의 이름으로 상품화되어 홋카이도 내외의 적설 지역에 보급되었습니다.